

# 강진만·보성 벌교·신안 가거도 도립공원 지정 난관

전남도 주민설명회… 일부 소득차질 등 우려 반발

다음달 추가 설명회·공청회 열어 의견 재수렴

전남도가 강진만과 보성 벌교, 신안 가거도 등을 도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진만을 비롯한 보성 벌교, 신안 가거도 등

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벌교 갯벌, 강진만 갯벌, 가거도 등 3곳에 대해 목포대 산학협력단 도서문화연구원에 대상 지역 인문환경 및 생태계 조사,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처 협

의 등을 내용으로 응역을 의뢰, 다음 달 2일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도는 주민 의견과 응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정고시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갯벌을 중심으로 한 해상공원 형태인 강진만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 강진 도암, 칠량 등이 일대 어촌계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규 어업 면허 제한, 어업권 축소 우려를 주장하며 도립공원 지정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또 가거도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임산물 채취 등 임업 소득 차질을 우려,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벌교의 경우 어민들이 현지에서의 추가 설명회 개최를 요구,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4월 중으로 추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원 지정에 따른 어업행위 제한 등 경제활동 불이익 등은 전혀 없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내 도립공원은 모두 5곳으로 조계산·두륜산(1979년 12월 26일 지정), 천관산(1998년 10월 13일), 무안갯벌·신안갯벌(2008년 6월 5일) 등이다.

/운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담양 장애인 복지센터 이달 착공

친환경 건축방식 도입

11억 들여 8월 준공

담양군 장애인 복지센터<조감도>가 장애물 없는 건물(BF)인증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 친환경 건축방식을 도입해 건립된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 장애인 복지센터가 담양읍 천변리에 이달 중순 착공에 들어가 8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장애인 복지센터는 장애인 편의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센터 건물은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유럽풍 프로방스식 건축물로, 대지 2640㎡·건평 356㎡의 단층건물 구조로 세워진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장애물 없는 건물(Barrier Free) 인증평가를 거치게 된다.

군은 건물 옥상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월 70만원 정도)을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체력 단련실과 샤워실, 다목적 회의실, 쉼터 등이 들어선다.

군은 기존 금성면 헤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12년 담양읍 천변리에 부지를 마련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신축되는 장애인 복지센터는 장애우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득창출을 위한 각종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박수랑 백비 전시실 외벽 CI 타일 눈길

외벽에 청렴교육에 참여한 기관·단체명과 심벌, CI 등을 새긴 타일을 붙였다.

장성군 주관의 청렴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아곡 박수랑 백비(白碑) 전시실’ 벽면을 메운 청렴교육 참여기관 CI 타일을 보고 있다. 군은 이용빈도가 낮은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해 백비전시실을 설치하고 박수랑 선생의 청빈한 삶을 패널로 제작해 전시하는 한편

(장성군 제공)

## 남도 전통 명주 뽑는다 전남도, 내달 24일 품평회

전남도는 전통술의 품질 향상과 남도 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4일 도청 수리체에서 남도 전통술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품평회는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총 8개 주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내 각계 분야 주류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18점의 남도 전통명주를

선발한다.

품평회 참가자격은 국세청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로 최소 3개월 이상 판매실적이 있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어야 한다.

품평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주종별로 1개 제품을 오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이 위치한 시군에 출품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심사신청서와 출품 제품의 내역서, 국세청 제품 시험성적서, 국산 농

산물 원료 사용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등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맛, 향, 색을 평가하는 2차 관능심사로 이뤄지며, 1·2차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품평회에서 최종 선발된 제품은 오는 11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전남 대표브랜드로 출품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영화관 운

## 나주시-CGV 개봉 영화 상영 재협약

국내 최대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와 협약으로 극장이 없는 나주에서 시민들이 최신 개봉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나주시와 CJ CGV는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나주시-CGV 개봉작 영화 상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CGV는 월 2편 이상의 영화를 CGV와 동시에 개봉하고, 최신 개봉작을 연 120일 범위 내에서 매월 주말(토·일·공휴일 포함)에 상영하기로 했다. 영화비용은 한 편에 5000원이며, 카드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영화관 운

영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지역시민을 위해서 분기에 한차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시는 시민들의 편안하고 고퀄리의 영화관람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나주 문화예술회관 1층 관람석 380석을 310석으로 줄여 앞뒤 간격을 넓히고, 음향시설을 보수·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CGV는 나주시와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9개월간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44편의 영화를 상영, 누적 관객수 1만5000여명을 기록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 세 얼굴

### “지역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확대”

#### 김 양 곤 농협 화순군지부장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양곤(54)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만전을 기울여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김 지부장은 광주광역시 광주대 금융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에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지역본부 팀장, 광주 운암동지점장, 목포 중앙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화순=조성수기자 css@



##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채널A〈먹거리X파일〉이영돈 PD와 착한식당〈빵드辘辘〉의 이호영 대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